



성명서

2021. 11. 28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후 김건희씨 급여 열 배 이상 늘어, 김건희 · 후원사 간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즉시 수사하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지 3주나 지났지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칩거 중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가 “사업으로 바쁘다”라고 하였으나,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주)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의혹들을 소명해야 한다. 바쁘다는 그 사업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은폐하는 중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측이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 년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편인 윤석열이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 원,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김건희 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출신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현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저간에는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되었나, 지위가 이용되었다 라는 게 주요쟁점”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불성실한 소명을 질책했다.

윤석열 후보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 4천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후원사와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 김병기

부단장 홍기원 황운하